

다산포럼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해결은 어디에선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소극으로!” 칼 마르크스가 프랑스혁명사 3부작에 남긴 말이다. 아마도 마르크스의 문구들 중에 요즈음 주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일 듯하다. “그는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난 똑똑한 소년이었다. 자신의 머리와 결기가 아니고서는 험난한 세상을 견뎌낼 수 없는 배경 속에서 자라났으므로, 그는 세상 권세 가진 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부지를 키워나갔다. 숨 쉬기조차 답답했던 억눌린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이 그의 꿈이었다.

광활한 만주 벌판은 그에게는 ‘부투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 그 살아남음을 성취하는 방법, ‘법벌’이와 ‘생존’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비웃음이나 냉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 세상의 철칙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때, 그에게 이념 따위란 그저 차려입은 옷 위에 필요에 따라 바귀 붙이는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도둑처럼 다가온 해방을 맞이한 조국으로 돌아왔다. 어려서부터 ‘고래’ 등 같은 기아집에 살면서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자란, 학벌과 문화자본을 갖춘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는 예의 생존 본능으로 마침내 권력을 움켜잡는다.

무자비함. 그것은 그로서는 삶을 위한 몸부림에 다름없었다. 그에게 2인자란 꿈이었기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철저하게 익힌 정치란 동지와 적을 구별하는 것, 반증 불가능한, 즉 책임을 증명할 수도 적이 아남을 증명할 수도 없는 낙인찍기에 다를 아니었다. 자신의 권력에

의문을 나타내는 자는 안보의 적이자 인민의 적으로 몰아붙였다.

그런 그로서도 만고불변의 법칙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은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다. 대의명분 싸움에 지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달픈 삶에 지친 인민들은 그에 대한 노스텔지어에 사로잡혀 바로 그 혈육을 다시 지도자로 추대했다.

그 ‘혈육’이 배운 것이라곤, 그러나 2인자를 두지 않는 냉혹함, 정적에 대한 철저한 숙청뿐이었다.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엘리트들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란 말인가! 지식인이란 얼마나 서글픈 존재인가? 그저 개인적 차부라도 드러내어 굴욕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명분은 어디에선가 찾아내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그저 도망갈 곳이 없을 정도로 실책 능욕하고 나면 알아서 사라져 갔고, 알아서 고개를 조아렸다. ‘혈육’은 의회 따위는 무시하고, 아니 적대하며, 공고한 체제를, 선조가 이루지 못했던 저 불멸의 권력을 꿈꾸었다. 안보의 적, 인민의 적은 의회 안마당에서 개 끌어가듯 끌어냈다. 언론은 그 장면을 생중계하며 나팔을 불어냈다.

그러나 권력 또한 “사람의 일”이라면 역사는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되풀이될 것이다. 그 ‘혈육’의 원조쯤 되는 이는 성난 인민의 손에 폐위되어 적국의 포로로 지내다가, 회한과 번민 속에서 숨졌다.

누군가의 예언처럼 그 선조의 동상은 길 거리에 내팽겨졌고, 역사의 반면교사로 길에 남았다. 마르크스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나폴레옹 1세)이 ‘그’의 이름이고, 루이 나폴레옹(나폴레옹 3세)이 그 ‘혈육’의 이름이었다면,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나폴레옹이 있고, 아예 되었던 두 번 반복되는 역사의 대단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불현듯 찾아오더라도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와버린 인민들의 삶, 그 비투한 삶은 계속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인용으로 시작한 글, 인용으로 맺는다. ‘데미제라’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말했다. “그가 역사에 남긴 최대의 해악은 스스로 독수리인 줄 아는 칠면조를 키운 것이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영구노동계급의 비참한 상태를 동정하며 위안을 구하는 독일인들에게 남긴 또 다른 한마디. “이건 바로 네 얘기가(De te fabula narratur)!”

양동욱의 S 스토리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당신은 배우자와 함께 낯선 실험실에 초대된다. 그곳에는 침대가 하나 놓여있고 익숙하지 않은 기계들이 즐비하다. 실험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고 침대에 눕자, 당신과 배우자의 몸 여기저기에 의료 기구들이 부착된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당신과 배우자가 할 일은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교를 하는 것이다. 성행위를 하는 동안 당신 몸에 부착된 기구들이 당신의 호흡, 혈압, 심장박동, 체온, 혈액 흐름 등의 변화를 실험하기 기록할 것이며, 두세 명의 실험자들이 당신의 주요 생식기의 외부 변화를 관찰할 것이다. 자,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러한 실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1957년에 미국 위싱턴 대학의 마스터스와 존슨은 남녀가 입맞춤할 때, 서로의 몸을 어루만질 때, 그리고 성교를 하는 동안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를 시작한다. 침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실험실로 옮겨와서 관찰하겠다고 했을 때 대중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

사랑의 시간, 남성과 여성의 몸의 변화

있지만, 1965년 연구가 끝날 때까지 놀랍게도 382명의 여성과 312명의 남성이 성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이 실험에 가까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실험실에서 자위행위나 성교를 했는데,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여성 성기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사지가 들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인조 성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마스터스와 존슨은 이들의 1만 차례의 성 반응을 바탕으로 신체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그 결과를 1966년 ‘인간의 성 반응(human sexual response)’이라는 책으로 발표하였다. 인간의 성행동에 관한 기계론이라는 흑역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마스터스와 존슨이 말한 바로는 성행위를 할 때 성 반응은 크게 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흥분기, 고조기, 극치기, 해소기이다. 흥분기는 상대를 향한 성적 욕망이 신체 변화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 수가 증가하며 혈압이 상승하는데, 성기 주변의 혈관에 혈액이 몰려 성기의 감각이 예민해지며 따뜻함과 동시에 근육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남성은 음경이 커지고 단단해져 발기되고, 음낭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팽팽해지며 고환이 커지고 처져 올라가게 된다. 여성은 질에서 윤활작용이 시작되며 자궁의 근육이 상승하고, 대음순과 소음순 및 음핵의 크기나 두께가 커지며 유방이 부풀어 오른다.

성적 자극이 계속되면서 흥분기에 나타났

던 신체 반응이 더욱 뚜렷해지는데 그것이 극치기이다. 남성의 귀두는 면적이 커지고 질게 착색되며, 요도에서는 몇 방울의 액체가 분비된다. 이 액체를 쿠라선액 또는 구요도선액으로 부르는데, 요도 점막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 정자가 잘 통과하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하며 요도 점막에 해로운 물질이 묻어 있으면 이를 뒹어 정자를 보호한다. 여성의 자궁은 더욱 상승하여 질 안쪽이 확장되며 질 입구 부분에 평소와 달리 혈액이 몰려 팽창된 조직으로 변하는 오르가슴 운동을 형성한다.

격렬한 흥분에 휩싸이면서 신체적 반응이 절정기에 이른다. 이때 성기 주변에 몰렸던 혈액이나 근육의 긴장들이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성 반응주기 중 최고의 쾌감 또는 만족감, 즉 오르가슴을 경험하게 된다. 남녀 모두 심장 박동 및 호흡이 최고조에 이르고 성기 주변의 근육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 0.8초 간격으로,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15회 정도 경련하듯이 수축한다. 이때 남성 대부분은 사정한다. 안타깝게도 극치기는 성 반응 주기에서 가장 짧은 단계로 보통 몇 초에 불과하다. 거칠게 질척대던 파도가 잠잠해지듯, 성기에 몰렸던 혈액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심장박동과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해소기가 찾아온다.

남성과 여성의 성 반응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만 그 차이 또한 뚜렷하다. 먼저, 남성은 성 반응주기에서 한 번의 극치를 느끼고 되풀이 유방이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해소기에

발기되지 않는데, 다시 흥분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휴식이 필요한 무반응기 또는 불응기(refractory period)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에, 어떤 여성은 한 번의 성 반응주기에 서 몇 번의 극치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여성은 고조에 다다르지 못하거나 고조에 머물며 극치를 경험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의 해소기는 남성보다 완만하여 상대의 따뜻한 손길과 포옹과 같은 정서적 자극을 통해 또 다른 만족감을 경험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성적으로 흥분하는 속도가 달라서 절정기에 도달하는 시간 또한 차이가 난다. 연구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남성은 3분, 여성은 13분 정도에 오르가슴에 도달한다고 한다. 남성은 심리적 흥분과 동시에 곧바로 발기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성급하게 성교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여성은 사랑이 담긴 감미로운 속삭임이나 부드럽고 빠른 정열적인 손길을 느긋하게 즐기며 신체적 흥분이 소진된다. 남성이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위해서 질주한다면 여성은 오르가슴을 향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로의 마음과 몸이 어떤 자극에 민감한지 공부하지 않으면 남녀가 동시에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어렵다. 책을 보고 공부하려는 뜻이 아니다. 성적 대화를 통해 상대의 마음과 몸을 탐색해보라. 두 사람의 마음과 몸이 서로에게 어느 정도 열려 있는가에 따라 성 반응주기는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책을 읽자, 책이 희망이다!

정독(精讀)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 한다.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책과 가까이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베스트셀러 광고, 신문에 실린 서평, 도서관에서 올린 추천 도서 목록 등을 보고 마음이 끌린 책은 찾아서 빠르게 읽어 볼 수 있고, 28만여 권에 달하는 장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관심은 예전만 못하다는 점에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책을 읽자, 책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전 직원들이 시내 주요 거리 곳곳에 나가 한 달여 동안 독서캠페인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도서관 뒤편에 위치한 아름다운 안장산과 연결되는 독서힐링길을 만들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였으며, 독서동아리 구성,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 모범독서인 표창, 길 위의 인문학 강좌 등 독서 열기를 이끄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내년에라도 시민 한 책 읽기 운동 등 여러 활동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고 기억된다. 당시를 기억해 보면 하루에 1500여 명이 넘는 학생과 일반인들로 도서관이 매우 북적거렸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관장으로 다시 부임한 도서관은 과거의 기억과 많이 달라졌다. 도서관이 포퓰러화된 자리에 있었던 시기까지 거슬러 가면 40년이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28만여 권에 달하는 장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관심은 예전만 못하다는 점에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책을 읽자, 책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전 직원들이 시내 주요 거리 곳곳에 나가 한 달여 동안 독서캠페인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도서관 뒤편에 위치한 아름다운 안장산과 연결되는 독서힐링길을 만들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였으며, 독서동아리 구성,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 모범독서인 표창, 길 위의 인문학 강좌 등 독서 열기를 이끄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내년에라도 시민 한 책 읽기 운동 등 여러 활동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방송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도 된다. 반면 책 한 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자는 물론 편집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검수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의 실릴 가능성이 적다. 또한 글로만 적어진 책을 계속 읽어 나가려면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지금처럼 매일 달라지는 변화의 시대에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장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요즘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 업무에 쫓겨 하루를 보내고, 퇴근 후 지인들과 술 한 잔 하고, 귀가해서는 TV를 시청하다가 자는 반복적인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얇고 가벼운 내용의 책이라도 좋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책을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자. 어느 날 나도 몰래 놀아나 괴담과 지식, 상상력에 감쪽 놀라는 날이 오리라 생각된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새 성장동력, 크루즈 인프라 확충 급하다

크루즈선을 이용한 중국인 등 외국인 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관광 활성화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남은 중국과 인접해 유리한 여건을 지녔으면서도 크루즈 인프라가 열악해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다.

해상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크루즈선을 타고 국내 항만으로 들어온 관광객은 79만5603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8만2000명에 비해 2.8배나 증가한 수치다. 대형 관광선의 국내 입항 횟수도 414회로 1년 전 226회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은 중·일 관계 악화와 일본 방사능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내 항으로 몰려드는 추세다. 실제 연초부터 입국한 크루즈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84%인 63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국과 가까운 전남지역 항만의 기항 실적은 미미하다. 여수항에는 중국인을 포함해 12차례 1만2500명, 광

양항에 5회 1만7100명이 방문했을 뿐이다. 이는 전체 방문객의 3.7%에 그치는 숫자다.

전남의 크루즈 실적이 낮은 것은 관련 인프라가 형편없기 때문이다. 전용 부두인 여수항에는 8만급 이상 입항이 불가능해 대형 크루즈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광양항에 입항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부산 북항(10만급), 인천 남항(15만급), 제주 강정항(15만급)에 전용부두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이 깨끗한 환경과 풍성한 먹을거리 등 중국인 유치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인프라 없이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전남도, 해당 지자체는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과 입출국에 필요한 인력, 소풍물과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 전남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만큼 ‘관광 황금알’로 불리는 크루즈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단 직원들 해외서 망신·추태라니

일본 홋카이도 문화재단 초청 특별전 시회에 참여했던 광주문화재단 직원들이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주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동행한 작가들에게 욕설까지 퍼서 몇 번의 극치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여성은 고조에 다다르지 못하거나 고조에 머물며 극치를 경험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의 해소기는 남성보다 완만하여 상대의 따뜻한 손길과 포옹과 같은 정서적 자극을 통해 또 다른 만족감을 경험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성적으로 흥분하는 속도가 달라서 절정기에 도달하는 시간 또한 차이가 난다. 연구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남성은 3분, 여성은 13분 정도에 오르가슴에 도달한다고 한다. 남성은 심리적 흥분과 동시에 곧바로 발기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성급하게 성교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여성은 사랑이 담긴 감미로운 속삭임이나 부드럽고 빠른 정열적인 손길을 느긋하게 즐기며 신체적 흥분이 소진된다. 남성이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위해서 질주한다면 여성은 오르가슴을 향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로의 마음과 몸이 어떤 자극에 민감한지 공부하지 않으면 남녀가 동시에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어렵다. 책을 보고 공부하려는 뜻이 아니다. 성적 대화를 통해 상대의 마음과 몸을 탐색해보라. 두 사람의 마음과 몸이 서로에게 어느 정도 열려 있는가에 따라 성 반응주기는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은 동행한 작가에게 ‘좋은 술집’에 다녀왔다고 자랑도 했다고 한다. 더욱이 정도 실장은 행사 마지막 날 작가 대표를 술집으로 불러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 넘어져 다치는 불상까지 발생했다니 재단 실장으로서 자질을 따지질 않을 수 없다. 공식 해외 교류행사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술판을 벌이고, 싸움질로 국가적 망신을 산 게 가담한 일인가.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단은 지난 3월 전남인 사무처장이 각종 인사 개입 의혹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데다 조직 내 문제를 건의한 문서가 유출되는 등 논란이 야기되면서 아직도 상흔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추태는 문화재단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광주시와 문화재단은 이번 사태를 낱살이 조사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강 확립 차 따로 외출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無等鼓

“지구에서 보던 달과는 완전히 다르다. 옛날에 내가 알던 달은 평평한 노란색 원반이었지만, 지금 보고 있는 달은 유령처럼 푸른 빛을 띤 창백하고, 하얗고 거대한 공이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사령관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는 가까이서 바라본 달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동료인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의 달 표면에 역사적인 첫 발자국을 찍을 때 그는 사령관 위성 내에 실린 달 탐에 홀로 남아 달 궤도를 돌아야 했다.

우리 조상들은 달을 보며 계수나무 아래에서 토끼가 떡방아를 찧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1609년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가 손수 만든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첫 관측하면서 동근 구름모양으로 여졌던 고정관념이 깨졌다.

그는 관측 후 “그것은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모양이 아니라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지구의 표면과 마찬가지로 어디에나 광대한 돌출부, 깊은 계곡과 만곡부가 가득하다”고 기록했다.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은 과거 인류의

과학발달을 촉진시킨 영감의 원천이었다. 이제는 헬륨 3 등 주요 희귀자원을 얻을 수 있는 보고(寶庫)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강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중국이 달 탐사경쟁에 나선 까닭이다.

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가 지난 14일 달 표면에 안착했다. 러시아(옛 소련)와 미국에 이은 세 번째 달 역사적인 첫 발자국을 찍을 때 그는 사령관 위성 내에 실린 달 탐에 홀로 남아 달 궤도를 돌아야 했다.

中 달 탐사

위성 내에 실린 달 탐사차량 ‘위투’(玉兔=옥토끼) 분리에 성공

하면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했다. 6개의 바퀴가 달면 ‘위투’는 3개월 동안 달의 지형과 지질구조를 탐사하고, 각종 사진과 관측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거침없는 우주개발 행보가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020년 한국형 발사체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록 시범착을을 꺾더라도 우주개발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진행될지 기대한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간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이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영 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미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프로젝트 팀 2200-555	문 화 시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